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701 호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野, 총선후보 경력에 '이재명' 표기 불허…'현역 페널티' 강화

경력란에 특정인 성명 금지…현역평가 하위 10%에 경선득표 30% 감산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총선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흥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흥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

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송진영 기자

‘코인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골퍼 안성현 “혐의 부인”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1)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성현 프로골퍼

두 4천400만원어치 명품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창작된 허구의 진실”이라며 “30억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 안씨는 강씨와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총 50억원 전액에 대한 사용처가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신현우 기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자제해야…입법권 대체 못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은 입법 독재를 통제하기 위한 것 이지,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면서 “이런 대원칙을 부정하고 무제한적인 거부권을 인정하면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독재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부권 행사요건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해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리 침해 수단으로써의 오용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압도적인 국

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 동향은 국회 입법권을 무산시킬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내용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 개념 확대는 하청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정리해고 등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 쟁의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고 단체 교섭과 파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그간 하청노동자는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임금이 오르고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하청이) 상당 부분 내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용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혁신하는 쪽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데도 노조할 권리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런 비합리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 이현수 기자

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진 김영란법 위반…경찰로 넘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 나섰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방통위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MBC는 “방문진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일은 문제 삼고 있지만,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모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경찰청과 방통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20일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원, 김 이사는 115만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 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제3노조는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 박진성 기자



한동훈 '총선 등판론'에 들썩이는 여의도…여야 복잡한 셈법



대구 방문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이 급부상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 법무부 방문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 차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선대위 원장 임명과 비례대표 앞 순번 배치, 상정적 지역구 자격 공천 등 '한동훈 사용법'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70% 정도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중앙 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해서 최고 격전지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등판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당 주류는 한 장관이 뜨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저하될 것이라

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보는 국민 시각과 한 장관을 보는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한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해 영향력이 확대되면 반사적으로 그동안 이 전 대표에게 주어졌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이준석 연대는 우리 당의 필승 카드다. 한 장관과 이 전 대표는 보완재"라며 "이 전 대표는 2030 남성들의 지지가 강하게 있고, 한 장관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가 있기에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 장관의 총선 등판에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등판론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

와 한 장관을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장관에 비유하면서 "한 장관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생각이 든다. 멋지고 힘 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잘못된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 장관"이라며 "국정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인기가 있다, 사인을 한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청출어람"이라며 "대구를 방문한 것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대변인 같은 활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윤성 기자



질문에 답하는 지드래곤

지드래곤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도 '마약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계속 안 나와 기다리다가 국과수에 먼저 전화했다"며 "감정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했고, 모발과 손발톱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권씨는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

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디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찬성 기자

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 ↑ …“소득 등 새로 반영”

평균 2천106원 늘어 인상률은 4년 중 최저…279만 세대는 보험료 내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中最최고, 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천12월)는 2천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

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세법상 토지·건축·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또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공단이 작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된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 된다. 조정 신청은 소득정산 부과 등에서 등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권유희 기자

한미일 북핵대표 전화 협의…“北 위성발사 중지 강력 요구”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연계 등에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이 기간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정균 기자



합리적이니까 | 믿을 수 있으니까 | 튼튼하니까

분양원가 공개
준공도면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도 강화

공사 자산공개

백년주택에 삽니다
서울 삽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주진우 하차시킨 박민 사장 검찰 고발”

“규범·시스템 파괴하고 공정한 방송 안전장치 무너뜨려”

KBS 박민 사장이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진보 성향 노동조합이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 노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박 사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박 사장 취임 후 제작진과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규범과 시스템이 파괴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한 안전장치가 치ぢ히 무너지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폭거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 박민 사장 방송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언론노조 KBS 본부는 주씨가 부당하게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박 사장은 이달 12일 임명안이 대통령 실 재가를 받았고 이날 밤 12시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12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담당 PD는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고 라디오센터장 예정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라디오센터장은 13일 오전 9시에 주씨와 통화하면서 하차를 통보하며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며 부당한 하차 통보가 박 사장의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방송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를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하고 ‘뉴스 9’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개최, 긴급 편성 통지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 책임자는 프로그램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실무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백재현 기자



검거된 김길수

검찰,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기소 도주 혐의 계속 수사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하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

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다. 그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추가된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난동 30대 여성 체포…슈주 규현 부상



뮤지컬 배우 분장실에 들어온 30대 여성은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룹 슈퍼 주니어 출신 뮤지컬 배우 규현이 상처를 입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 30분께 3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뮤지컬 공연 배우 분장실에 침입해 규현 등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신질환 이력과 흉기를 구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규현은 이날 열린 공연과 같은 작품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백현동 민간업자

의 다른 회차 출연진으로, 이날 분장실에는 동료 배우들에게 인사를 하러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가 규현을 노려 범행한 건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규현 소속사인 안테나 관계자는 “규현 씨는 손가락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현장에서 바로 치쳐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우들과 일면서 이는 없는 관계로, 이날 공연을 본 뒤 분장실에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어떤 내용으로 배우들을 협박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한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이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엔 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 황규현 기자

전장연, 두달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 시작 약 20분 만에 경찰은 해산을 시도했고 전장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 이희성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카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영수내 총리 “한영, 당연한 동반자”…“韓 기업 34조 신규 투자”

“다우닝가 합의, 투자 추동·무역 신장·우정 구축…양국 우정, 시간의 시험 견딜것”

영국 리시 수내 총리는 한국을 ‘당연한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한영 정상 간에 채택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겠다고 말했다.

수내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총리실이 ‘영국과 한국이 다음 세대를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에 합의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파트너십은 오늘,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혁신과 신기술 활용,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온바, 영국과 한국은 당연한(natural)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투자를 추동하고 무역을 신장하는 한편 우정을 구축할 것”이라며 양국의 우정이 “글로벌 안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밀한 관계로 이미 양국 사이에 210억파운드(33조8천억원) 투자가 추동됐다”며 “나는 미래에 적합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도 숙련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나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추동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수내 총리가 영국과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인 한국간 관계를 재정립할 주



윤석열 대통령, 한-영국 정상회담

요 장기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다우닝가 합의로 양국 관계가 깊어지고, 기술·국방·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초 싱가포르, 일본과도 비슷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총리실은 무역과 투자가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일 저녁에 총리가 다우닝 가에 한국 주요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22일엔 양국 통상장관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현대적이며 세계를 선도할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FTA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과 원산지 규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기존의 복잡한 협정을 간소화하며 세관 절차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영국 총리실은 설명 했다.

영국 총리실은 양국 교역이 2011년 첫 FTA 타결 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연 16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 전국의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

며 210억파운드 이상의 신규 투자와 추가 30억파운드(4조8천억원) 규모 무역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1천500개 이상 고도 숙련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다음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정부의 글로벌 투자 서밋에 출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투자는 양국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뒷받침하고,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을 세배로 늘리는 노력을 이끌 것이다라고 영국 총리실은 기대했다.

영국 총리실은 또 이번 파트너십으로

대규모, 소규모, 첨단 민간 원자로 협력이 가속화하고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의 복원력이 강화하며 수소 협력 및 해상풍력 관련 협력 기회가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영국 왕립학회 주도 최대 450만파운드 공동 연구 기금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와 같은 중요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더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실은 방위 협력과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도 국빈 방문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역내 범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 하에 영국 선박들과 함께 제재 순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총리실은 밝혔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 밀수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 제 제재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영국 총리실은 언급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간 이번 해양 공동순찰 활동은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첫 양자 대북 제재 집행으로, 향후 미국과 다른 동맹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제재 작전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총리실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땅속의 일정한 운도를 활용해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서울시, 가락시장에 2030년까지 국내 최대 지열설비 설치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1GW 보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열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가락시장에 국내 최대 규모인 23MW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리동·채소2동에 7.9MW 규모의 지열 설비를 1단계 준공하고 2~3단계 공사로 2030년 11월 중 채소1동·수산동·과일동에 15.5MW를 추가한다.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열 용량은 총 23.4MW로, 시청사 설치 용량의 5.7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가락시장 건물 냉·난방의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하고, 특히 경매장 저장·저온시설, 중도매인 점포의 냉·난방은 전량을 지열로 공급한다.

가락시장 내에는 2027년 6월까지 ‘지열 흥보관’을 조성해 흥보 거점으로 활용한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시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2005년

5MW에서 올해 6월 1천52MW로 크게 확대됐으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은 날씨나 예산,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땅속의 일정한 운도를 활용해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 강동주 기자

현대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자동차업계 첫

노동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중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아”



현대자동차·기아,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은 올해 2월 조선업계, 9월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세 번째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며, 협력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지급 능력으로 이중구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협력업체를 돋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대중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신자윤 기자

LH·GS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 자체보상금 9천100만원 제시

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대여·이사비 500만원 지급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1억4천500만원, 자체보상금 9천100만원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애초 제시한 보상안보다 금액이 상당히 오른 데다, 붕괴 사고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보다 보상 조건이 낫다는 평가여서 입주민과의 합의 가능성에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안은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

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으로는 9천100만원이 책정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천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천만원이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천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

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천500만원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천100만원)과 비교해 나은 편이라는 평가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비율,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욱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연금보험료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계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계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자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T 우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본다

SK텔레콤 “가입만 해도 본전 뽑는 혜택, 가성비 만족도 높은 우주패스 life 출시”
우주패스 life · all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제휴사 혜택까지

우주패스 life,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편의점·카페
최대 30% 할인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전 세계 8천만 명 이상 유료 이용,
'T 우주' 가입자 확대 계기 전망

SKT '우주패스 life · all'에서 광고로 인한 끊김이 없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
sktelecom.com)은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함께 세븐일레븐과 투썸플레이스 할인(최대 30%)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구독 상품 '우주패스 life'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객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유튜
브 프리미엄을 구독·결제할 경우 지불하는 요금은 현
재 월 1만 원대로, '우주패스 life'는 비슷한 가격에 편
의점·카페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경
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된다.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구
매 시 구매 금액 1천 원당 300원 할인이며 일 최대 9천
원, 월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썸플레
이스에서는 모든 제품을 매일 30% 할인받을 수 있으
며 일 최대 9천 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우주패스 life'의 기본 혜택을 사용하면서
세븐일레븐과 투썸플레이스에서 T 멤버십 앱의 '우주
패스 매직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우주패스 all 고객도 추가 혜택 중 하나로 유튜브 프
리미엄을 선택하고, 기존보다 550원 추가된 1만 450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멤버십
가격은 현재 안드로이드 기준 1만 원대 수준이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T 우주는
커다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SKT는 이번 T 우주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출시와
함께 9일부터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는 고객이 우주패스 life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도 연말까지 제휴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구독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패스 고객 유튜브 선택 시
첫 달 무료 프로모션 시행,
여행 상품권 이벤트도”

“커머스·F&B 중심에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까지 제휴 확대,
연내 100개 이상 늘릴 것”

아울러 지난 2021년 론칭 이후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T 우주'도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 우주는 글로벌 기
업부터 스타트업·소상공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
고, 고객이 이용 가능한 구독 플랫폼을 추구하고
온주일 만에 가입자 15만을 돌파했다.

미엄은 유튜브 내에서 ▲광고로 인한
영상 시청 ▲동영상 오프라인 저장·시
어드 재생 ▲유튜브 맥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8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가 구독 상품을 확장하면서 커머스와
서비스까지 폭넓게 확장되는 추세다.

혜택 더 줌

'유튜브 프리미엄' 마음껏 보면서



투썸플레이스 최대 30% 할인

세븐일레븐 최대 30% 할인

이 모든 혜택이 월 9,900원
첫 달 1,000원

우주 패스 life

YouTube Premium A TWOSOME PLACE 7-ELEVEN

YouTube Premium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고객님만 가능 | 7-ELEVEN 구매 금액 1천 원당 300원 할인 (일 최대 9천 원 / 월 최대 3만 원 할인) 일 1회, 일부 할인 상품/서비스 제외 | ATWOSOME PLACE 모든 제품 매일 30% 할인 (일 최대 9천 원 / 월 최대 3만 원 할인) 일 1회 | 세븐일레븐, 투썸플레이스 혜택의 경우 휴게소 입점 매장 등 특수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 (본문 전문의 바립니다) | 첫 달 할인은 구독 상품 및 SK텔레콤 부가서비스 등으로 기입 후 할인받거나 우주패스 첫 달 할인받은 경우 제외 | 선택안 추가 혜택에 따라서 첫 달 할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와 제휴사의 사정에 의하여 프로모션 혜택이 초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SK telecom

강남 '클럽 마약' 밀수입 조직...검경 공조수사에 일망타진

'고수의 알바' 운반책 모집해 태국서 60만명분 국내 반입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과 이들이 불법 반입한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바탕으로 한 일부 조직원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망을 넓혀간 양 수사기관은 유통조직의 우두머리까지 겨냥하는 등 조직을 거의 뿐리 뽑아내며 일망타진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27명 외에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5명까지 합하면 검거 인원은 총 32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



압수한 마약류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

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탈퇴 시 보복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 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텔레그

램 등에 '고수의 알바 보장' 광고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수사망을 넓힌 경찰과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가 서울 왕십리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 배 관계였다.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

구체적으로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밀수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

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염두할 수 있

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

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기자

과를 올렸다.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이들은 내부 규칙을 갖추고 공동체를 숨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계좌명세 분석 등을 통해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 의회를 열고, 수시로 수사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등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

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밀수

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

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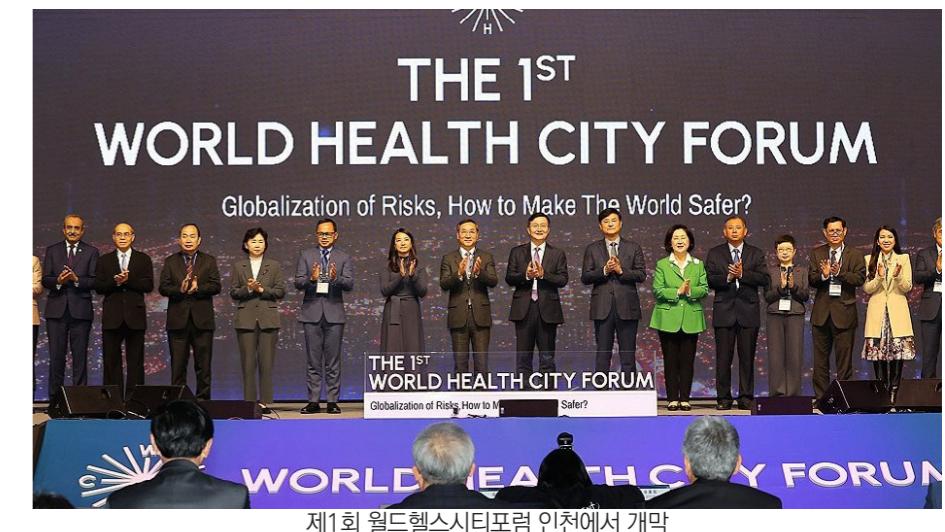
양 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

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염두할 수 있

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

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기자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인천에서 개막

글로벌 위기 대응책은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인천서 개막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책을 모

색하는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이 20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새로운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넥스트 팬데믹'의 위험에 대응하려면 전 세계 각국의 보건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회장을 맡은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녹색기후 기금(GCF) 등을 품은 도시"라며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관련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포럼에서는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스마트 헬스 시티의 비전을 논의한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20여개국에 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50여명이 헬스케어·스마트시티·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 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권유희 기자

유통 총책까지 32명 검거해 20명 구속...범죄단체 활용죄 적용

유동 총책까지 32명 검거해 20명 구속...범죄단체 활용죄 적용

11월부터 올해 7월 말

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30kg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이다.

유통조직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

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 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텔레그

램 등에 '고수의 알바 보장' 광고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수사망을 넓힌 경찰과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가 서울 왕십리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수십 일 동안 잠복한 끝에 국내 유

통조직 총책 D(30·구속)씨를 검거하는 성

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탈퇴 시 보복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

의회를 열고, 수시로 수사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등 4개월

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

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밀수

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

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 절차에 협조하

도록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

찰 수사를 지원했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

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염두할 수 있

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

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기자

"41년 숙원 풀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마침내 '첫 삽'

하부정류장서 착공식 열려 국무총리·도지사 등 300명 참석



신문지 활용한 환경 혁신 최소화 퍼포먼스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마침내 첫 삽을 뜯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20일 오후 2시에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에서 착공식을 했다.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도립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영상 시청, 기념사, 축사, 착공 퍼포먼스, 삭도 보고 등 순서로 이어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10월 최초 계획 입안 이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로 더디게 진행되다가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뒤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행정심판 등 자체와 추진을

반복하다 41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뜯다. 다만 아직 시공사 선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공사는 내년 3월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군은 2015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산양 서식지와 야고산대 식물 등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족시켜 조사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또 조기 착공을 위해 10개 중앙부처 등과 4개 분야 14개에 걸친 법령 인허가를 동시에 다발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조기 착공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2015년 최초 설계 시 587억원이던 사업비는 물가 상승, 공법 변경, 건축비 상승 등으로 1천172억원(강원도 224억원·양양군 9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와 군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방재정만으로 조기 준공해 연간 100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 등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초 상업 운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색~끌不清 하단부 3.3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오색케이블카는 8인승 곤돌라 53대가 편도 14분 28초를 운행해 시간당 825명을 수송할 예정이다. 도와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 유발효과 1천369억원, 933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

/ 오종민 기자

경남 여성단체 "여성정책 퇴행우려, 경남도 조직개편 철회해야"



평등 정책,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라며 "도는 이를 없애고 복지 부서와 통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가족국은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성주류화 제도 이행과 평가 등 막중한 역할을 한다"며 "개정안에는 여성 및 성인지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예산 등을 복지정책 뒤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현행 경남도 행정은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 행정은 성인지 관점으로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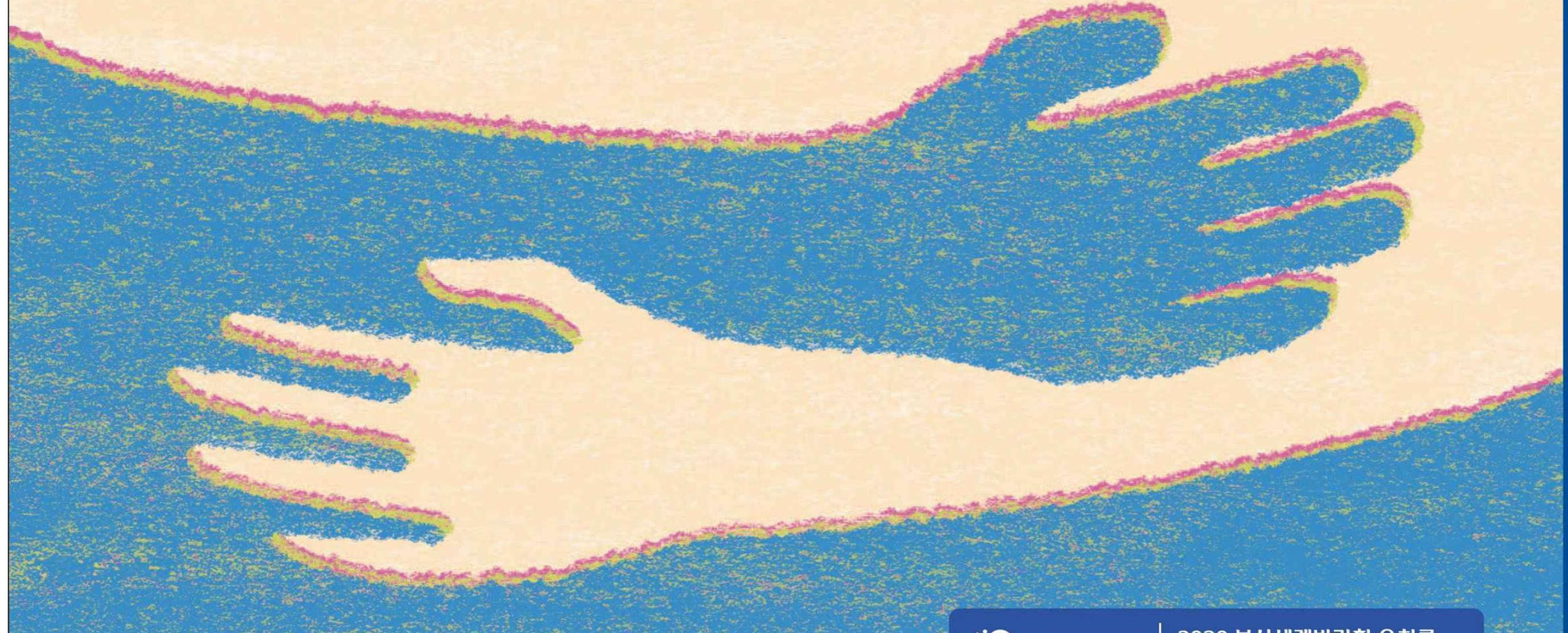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금융그룹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드릴 때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와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금융 혜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묵묵히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당신 곁에
언제나 우리금융그룹이 있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인양봉종봉원 박혁진 대표 (23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

To BEE continued**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노리는 황선홍호, 양리의 프랑스 완파

친선전서 3-0 완승…‘환상 프리킥’ 정상빈 멀티골·홍윤상도 골 맛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티에리 앙리 감독이 지휘한 프랑스 U-21 대표팀에 세 골 차 완승을 거뒀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U-22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프랑스 르 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프랑스 U-21 팀과 원정 친선전에서 3-0으로 이겼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에서 뛰는 정상빈(미네소타)이 멀티골을 푹발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홍윤상(포항)도 한 골을 추가했다.

황 감독은 안재준(부천)을 원톱으로 두고, 양 측면에 엄지성(광주)과 전병관(대전)을 출격시켜 공격진을 짰다.

여기에 강성진(서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 이들을 지원하게 했으나, 전반에는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병관과 교체해 그라운드를 밟은 정상빈이 투입 2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정상빈

황윤상이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자, 직접 키커로 나선 정상빈은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감아쳤다.

정상빈의 발을 떠난 공은 그림 같은 궤적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렀다. 기세가 오른 정상빈은 9분 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멀티골을 완성했다.

3-0을 만들었다. 이번 프랑스 원정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회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기록(9회)을 보유한 한국 축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 10회 연속 대회 본선행을 노린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당면 과제는 내년 4월 AFC U-23 월드컵에서 3위 안에 들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것이다.

앞서 황선홍호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18일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르아브르 AC와 친선전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다.

‘레전드 골잡이’ 출신으로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이끄는 양리 감독은 마티스 텔(바이에른 뮌헨), 브래들리 바트콜라(파리 생제르맹) 등 유수의 명문 구단에서 뛰는 유망주를 출전시켰으나 쓴맛을 봤다.

/ 최준용 기자

세계선수권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 21일 프랑스로 출국



할 예정이다.

26회째인 올해 세계 여자 핸드볼선수권에는 32개 나라가 출전,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각 조 상위 3개국이 결선 리그에 진출하며, 결선 리그에서는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오르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13일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그린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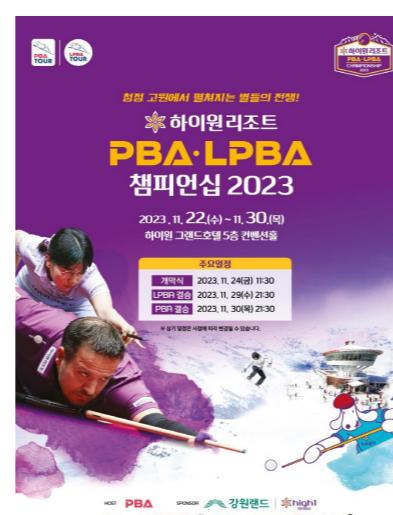
격차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은 1995년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직전 대회인 2021년에는 32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최근 8강에 든 사례는 2009년 중국 대회 6위다.

/ 권정석 기자

프로당구 시즌 7차 투어 하이원리조트 챔피언십 22일 개막



프로당구 PBA 일곱 번째 투어가 22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프로당구협회 PBA는 21일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을 2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PBA 투어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했던 하이원리조트는 이번 시즌 PBA 팀 리그에 합류해 이충복, 임성균, 응우옌득아인찌엔, 응우옌프엉린(이상 베트남), 트루 체네트(튀르키예), 이미래, 용현지 등 스타 군단을 영입했다.

이번 대회는 22일 여자부 LPBA 1차 예선 라운드를 시작으로 23일 2차 예선과 64강전을 치른다. 24일은 남자부 PBA 128강으로 본격적인 대회에 들어간다. LPBA 결승전은 29일 오후 9시 30분에 열리고, PBA 결승전은 30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된다.

관전 포인트는 이충복의 프로 첫 승 여부다. 이번 시즌 우선 등록으로 프로에 입성한 이충복은 지난 6개 투어에서 아직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이충복은 벨기에 출신 강호인 에디 레펜스(SK렌터카)와 128강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여자부에서는 직전 투어 우승자인 최혜미(웰컴저축은행)가 시드를 받아 64강에서 대회를 시작하고, ‘특급 신인’ 권발해와 ‘3쿠션 세계선수권 우승자’ 이신영이 1차 예선 첫판부터 경기를 펼친다.

/ 신승준 기자



인사하는 ‘골든글러브’ 김하성

김하성 트레이드설에 “출전 가능하면 OK…그래도 난 샌디에이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골드 글러브 수상에 빛나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내년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내야수 최대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2021년 샌디에이고에 진출할 당시 4년 총액 2천800만 달러 보장 계약을 체결했던 그는 2024년 시즌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

만 FA가 되니까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하성의 수비 실력은 처음 빅리그 무대를 밟았던 2021년부터 우월했다. 타격 능력이 고민이었던 그는 첫해인 2021년 OPS(출루율+장타율) 0.622에서 지난해 0.708, 올해 0.749로 점차 끌어올렸다.

올 시즌 김하성의 성적은 타율 0.260, 17홈런, 38도루, 60타점, 84득점으로 빅

내년 시즌 마치면 MLB에서 FA 자격 취득…대형 계약 노려

샌디에이고 구단과 합의하면 5년 차인 2025년 계약을 1년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 김하성의 위상을 고려하면 한 해라도 빨리 FA 시장에 나가는 게 이득이다.

야구계에는 ‘FA 로이드’라는 말이 있다. FA를 앞둔 선수가 이제껏 보여준 평균적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남기는 현상을 뜻한다. 한 시즌 활약으로 계약 총액의 ‘앞자리 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선수에게 최고의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하지만 김하성은 미국에 진출한 이후 절실히 않 았던 시즌이 없다. 이제는 수비 능력만으로 메이저리그를 험하는 선수가 됐지만, 2024년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김하성은 2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 베라 청담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FA를 맞이하는)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게는 안 중요했던 해가 없었다”면서 “해왔던 대로 준비할 거다. 다

리그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냈다. ‘원래 탄탄한’ 수비에 타격 성적을 올해보다 더 끌어올리면 총액 1억 달러짜리 대형 계약도 꿈만은 아니다.

김하성 역시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보다 좋아지는 내년”이라고 말했다. 내년 김하성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시즌을 고스란히 치르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샌디에이고 구단이 장기 계약으로 연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샌디에이고가 ‘리빌딩’을 선언하고 높은 가치의 김하성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도 있다. 올 시즌 내내 이러한 트레이드설에 시달렸던 김하성은 “처음에는 스트레스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결국 트레이드가 된다는 건 다른 팀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닌가. 어느 팀이든 뛸 수 있는 출전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관없다”면서도 “그래도 저는 샌디에이고가 좋다”고 속내를 밝혔다.

/ 흥행석 기자

현대백화점 패밀리 우크

23.11.10 ~ 11.26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는 쇼핑 축제

백화점과 면세점부터 한섬, 리바트, 지누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에 자리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 쇼핑 축제를 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H-Super Pass부터 꼭 갖고 싶은 경품을 모은 래플 이벤트까지, 당신을 위해 각별히 준비한 이벤트와 선물을 지금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내일 개봉 '서울의 봄' 13만명 예매…韓영화 흥행 불씨 될까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이 개봉 하루 전날 13만명이 넘는 예매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침체한 한국 영화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 면 '서울의 봄'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예매율 49.4%, 예매 관객 수 13만3천여 명으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2일 극장에 걸리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첫 번째 영화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 세력과 이에 맞서는 사람들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황정민이 보안사령관 '전두광' 역을, 정우성이 그를 막으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았다. 이성민은 육군참모 총장 '정상호', 박해준은 9사단장 '노태간' 을 각각 연기했다.



영화 '서울의 봄' 속 한 장면

예매율이 비교적 높은 데다 앞서 열린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호평이 쏟아졌던 만큼 영화계에서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한국 대작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하고 외화가 강세를 보였던 터라 '서울의 봄'에 거는 기대는 더 큰 분위기다.

올해 한국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네 편에 불과하고, 극장가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연휴에도 흥행작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봄' 제작비는 200억여원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460만명으로 알려졌다.

영화계는 '서울의 봄'이 관객을 대거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달 20일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한국 대작인 '노량: 죽음의 바다'가 흥행 베단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명랑'과 '한산: 용의 출현'을 이은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이다. 김한민 감독은 자신의 영화보다 한달 앞서 개봉하는 '서울의 봄'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김성수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이주한 기자

블랙핑크, YG와 '그룹 활동' 재계약 가닥...막판 협의 중



걸그룹 블랙핑크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그룹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블랙핑크 네 멤버는 팀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YG와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의 중이다. 멤버 제니는 지난 9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피날레 공연에서 "저희를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있 는 블랙핑크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이날 오전 현재 그룹 활동 계약서에 멤버 전원의 날인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YG는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팀 활동에 대해 재계약에 날인한다면, YG로서는 자사 최대

IP(지식재산권)를 지켜내게 된다.

다만 팀 활동이 아닌 멤버 개인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멤버 개개인이 가수 혹은 배우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 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홍보대사)로 활약할 만큼 국제적 인지도가 높기에 네 명의 '눈 높이'를 모두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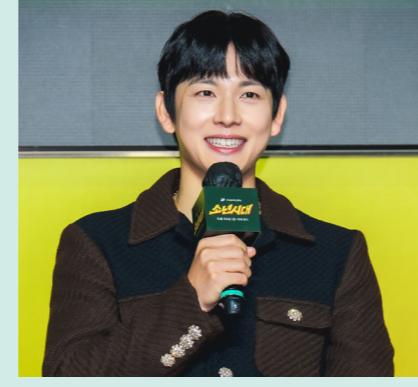
이에 따라 멤버들이 개인으로는 YG를 떠나더라도 다른 유명 그룹들처럼 '파로 또 같이' 방식을 통해 개인 활동과 YG에 서의 팀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YG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 고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8월 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과 '붐바야'로 데뷔했다. 제니, 지수, 로제, 리사 네 멤버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YG의 새 걸그룹으로 데뷔 와 동시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강효선 기자

찌질해진 임시완의 '소년시대' "멋있는 척 대신 있는 그대로"



쿠광플레이 새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시대'에서 색다른 연기 변신에 도전하는 배우 임시완은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멋있는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돌아봤다.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를 배경으로 안 맞고 사는 게 일상일대의 목표인 은양의 '찌질이' 장병태(임시완 분)가 하루아침에 부여 '일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모님에게 신세 한탄하는 모습부터 익살스러운 '기역나은 춤'까지. 임시완은 전작으로 쌓아온 진중하고 다정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서슴없이 망가진다.

그는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라서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똑똑한 척을 안 해도 돼서 부담감이 덜 했다"며 웃었다.

충청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사투리 과외는 물론, 그 시절 유행했던 춤을 몸에 익히기 위해 댄서 효진초이에게 3개월간 특훈을 받기도 했다는 임시완은 "시청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이명우 감독은 "시와씨는 이번 드라마를 위해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으로서 후반 작업 중에는 매의 눈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한 명의 시청자처럼 네을 놓고 보게 된 적이 많았다"며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볍게,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박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팬 쇼케이스

BTS 정국, 팬 2천800명과 쇼케이스 '골든' 전곡 무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20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팬 쇼케이스 '정국 골든 라이브 온 스테이지'(Jung Kook GOLDEN Live On Stage)를 열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1일 밝혔다.

정국은 이 자리에 함께한 팬 2천800여 명 앞에서 솔로 앨범 '골든'(GOLDEN) 수록곡 전곡을 열창했다.

그는 이날 '세븐'(Seven)과 '3D' 같은 히트곡도 들려줬다.

정국은 "골든"을 내고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매번 고맙고 사랑한다. 아미는 내 인생"이라고 팬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팀의 리더 RM이 현장에서 정국을 응원했다.

RM은 즉석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고서 "정말 멋있고 사랑스럽다"며 "마내지만 정국을 보면서 항상 배운다"고 말하며 응원했다.

정국은 약 2시간간 걸쳐 자작곡 '스틸 위드 유'(Still With You)까지 총 12곡을 불렀다. 행사는 글로벌 팬 플랫폼 워버스를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 224개국의 팬들이 시청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15만9천460명을 기록했다.

/ 황유진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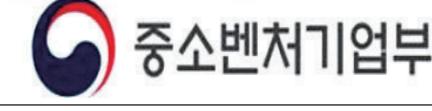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보릿지\(<http://tb.kibo.or.kr>\)](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밀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 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밀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